

# 부처와 중생 함께 놓아버려야 '중도'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다른 견해도 없다. 부처라는 견해를 버기만 하면, 바로 중생이라는 견해도 따라서 일어난다.

마음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교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치듯한 일컫는 '부처'나 '중생'이라는 말인데도, 어리석은 중생은 그런 말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양 집착한다. 부처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중생되는 소견이다. 부처를 구하면, 즉시 '부처 아닌 것' 즉 중생이 따라붙는다. 부처는 중생과 함께 양변을 이루기에, 불이법(不二法)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을 함께 놓아버려야, 중도인 한 마음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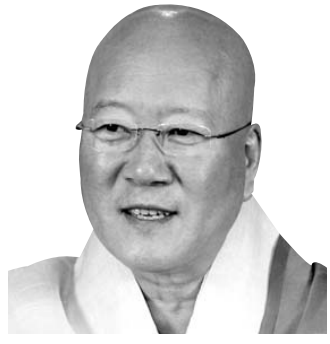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영원불변하다는 견해[常見]와 단멸한다는 견해[斷見]가 바로 두 철위산을 이루어 견해의 장애를 받게 된다. 따라서 조사들께서 일체 중생의 본심(本心)과 본체(本體)가 본래 부처여서, 덮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밝음도 어둠도 아님을 바로 가리키신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무차별이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했다.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조사들께서 이 사실을 바로 가리킬 뿐, 애들러 설명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설명하면 알음알이만 심어주게 되지만, 직지하면 언하에 깨닫는 기원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의심을 더 깊게 만들어서 돈오의 기원을 앞당겨주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며, 덮아서 증득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를 밟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소화할 수 없어서, 도대체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공부의 요점이 있어서, 진실된 공부인은 이 한 마디에서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고 공부의 바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없다. 그러므로 무명(無明)도 없으며 또한 무명이 다함[無明盡]도 없다. 우리 이 중문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뜻을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이름 하여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며,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을 승(僧)이라고 한다.

허공 자체에는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다. 빛이 있으면 밝아지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질 뿐이다. 밝음과 어둠에 상관없이 허공은 텅 빈 그대로 여여하다. 그래서 본래 마음자리에는 무명이라는 어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명이 다함이라는 밝음까지도 함께 없다. 그러면서도 인연 따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그 자리에는 무엇이랴도 이름을 붙일 수 없으므로, 법도 없고 부처도 없다. 부처와 법

## 수불 스님의 안릉록 선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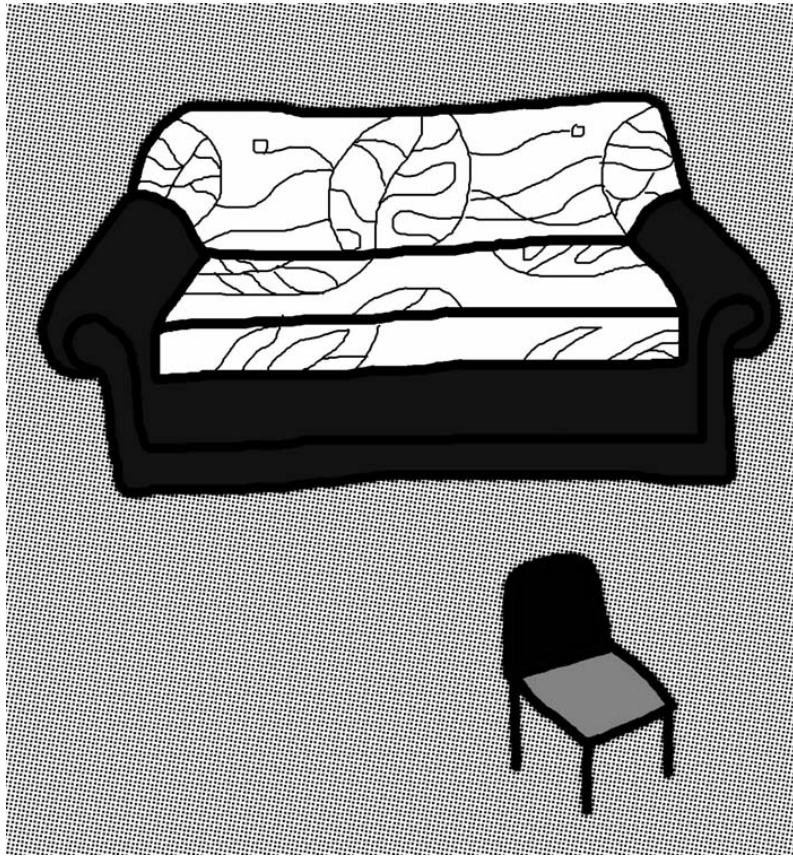
범어사 주지

볼 수 있는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 하며 부처·법 함께 없는 것 '승'

정진해 깨달은 사람이 '승려' 부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눈앞에 법 살펴 깨달으면 집착하라 마라 할 것 없이 저절로 구하는 바 끊어진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그 무엇도 법이라 정해진 것 없어서 깨닫기 전에는 불·법·승도 망상이고, 마음을 열면 일체가 불·법·승이다.



그림·박구원

이 다 함께 꼭지 떨어진다. 그 모습을 승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끈이곧대로 말하자면, 승려는 정진하여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 선(禪)은 이런 면에서 가차 없이 바른 말을 한다.

승마저도 됴이 없다면, 또한 일컬어 일체삼보(一體三寶)라 한다.

불·법·승 삼보가 일체라는 것은 깨달음의 당처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그 자리에는 불·법·승이 이미 무차별이다. 부처와 법은 물론 승이라고 할 것도 없다. 여기에 결합한 사람은 이미 삼보에 귀의를 했으니, 새삼 승이 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대저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아서,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법을 깨닫는 것이, 새삼스럽게 없는 법을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 법을 바르게 살펴서 깨달으면, 집착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저절로 구하는 바가 끊어진다. 그래서 영가대사는 '중도가'에서 "배움을 끊고 하릴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總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고 노래한 것이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랄 것도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

문에 법이랄 것도 없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랄 것도 없다."

삼승십이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고 강조하지만, 일불승의 최상승도리는 모든 문자를 씩 씩어버려도 전혀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자라는 상(相)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법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어서, 불·법·승 삼보조차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일체삼보에 진실 되게 결합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일단 결합한 사람에게는 두드물물이 불·법·승 삼보라서 하나라도 버릴 게 없다. 깨닫기 전에는 불·법·승도 망상이고, 마음을 열면 일체가 불·법·승이다.

## 8. 진리의 도량

배후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승(僧)도 없고 법(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배후는 아직도 말에 떨어져, 황백스님 말씀의 낙처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황백스님이 곧 승이며 또한 그 말씀이 법인데, 어찌 승도 법도 모두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 묻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아직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배후의 처지가 답답한 노릇이긴 하지만, 뒷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맙게도 그 덕분에 걸출한 선사인 황백스님의 자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86



### 본래 청정한 마음은 번뇌에 의해서 오염된다

《승만경》

#### 인간의 얼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말은, 실제로는 어느 신전에서 얻은 신탁(神託)이라 한다. 이 말을 듣고서, 소크라테스는 깊이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무지(無知)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받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원죄(原罪), 그 죄인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는 빼낼 수 없는 생선가지와 같은 것이지도 모른다. 절대자 신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길을 유일의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무엇이든 대답할까?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부처!" 그렇다.

불교에서는, 우리 자신이 부처라고 말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산초초목도 다 부처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대답이나 예수의 대답에 비한다면, 불교는 훨씬 더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나는 부처다", "우리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불교인은 얼마나 될까? 과연 있거나 한 것일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중생이 사실은 다 불성을 갖춘 부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평소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래, 그렇다.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부처로서의 삶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처라는 것은 '속'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겉'으로는 수많은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게는 이러한 이중구조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인식이 가장 타당한 인간이해가 아닌가 싶다. 본래 청정한 부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번뇌의 중생이고, 현실적으로는 번뇌의 중생이지만 실제로는 부처라는 것. 그러한 이중구조, 어쩌면 모순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 모순 속의 삶

인간의 이중구조, 혹은 모순을 《승만경》에서는 여래장(如來藏)이라 말한다. 물론 우리는 이중구조 속에서 어느 한 편에 초점

을 두면서, 다른 한 편을 포섭하는(혹은 이해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선(禪)은 본래 청정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서 수행법을 제시한다. 그 반면에 정토신앙은 오염에 초점을 두고서 수행법을 제시한다.

물론 선이라 해도 오염의 측면을 고려하는 선이 있다.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선이 그렇다. 돈오는 본래 청정을 깨닫는 것이지만, 점수는 현실적인 오염이나 번뇌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제어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 반면, 타락신앙이라 말해지는 정토신앙에서도 본래 청정함을 말하는 입장이 없지도 않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께 구원을 청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아미타불인 내가



그림·박구원

내 속의 아미타불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른바 자성미타(自性彌陀)설이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불교의 사상이나 수행법이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양한 진폭 속에서 자기 길을 발견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수행일 것이다.

청정과 오염, 불성과 번뇌의 이중구조는 모순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모순은 통일을 요구한다. 하지만 설부른 통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을 외면하거나 정도 이상으로 축소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뜻하지 않게, 모순된 존재로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 그 자체가, 지금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모순의 지식, 모순된 나 자신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新製品**

## 「Stuart YD-675 마이크」 단 한 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YD-675 高音質 다이내믹 마이크』의 담백하고, 맑고, 힘찬 소리는 스님의 품위를 한층 높여 드릴 것입니다.

- 이런 스님께 구입을 권합니다
  - ① 법당 마이크 사용에 너무 힘이 드시는 스님
  - ② 스피커의 소리가 안 좋은 법당
  - ③ 오래된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스님
  - ④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비구니스님
  - ⑤ 여러 마이크로 바뀌봐도 효과를 못 보신 스님
- 주문방법 :
  - 은행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마이크 코드가 필요하시면 프로그의 종류와 길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Stuart 상표는?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특허청으로부터 1986년 12월 27일자로 상표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도록 제조하는 모든 마이크에 사용하고 있는 고유 브랜드로서 대표적인 마이크로 "DX-707" "V-606LC" "V-620" 신제품 "YD-675"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이크는 사철 외에 일반 시중에는 단 1개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Apitherapy Correct Master

## 벌(蜂) 침관리사

일침 이구 삼약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 벌침(蜂)관리사란?

벌(蜂)공무니에 있는 침을 손과 핀셋으로 입통 및 경혈에 직접과 자침을 하여 일침이구삼약(침/뜸/약)의 동시 효과로 밸런스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신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활법 교정술과 접촉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평생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벌침관리 전문가다.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자세와 근육론 / 경혈론 / 증상론</li> <li>● 벌(蜂)침의 척추신경 / 경락의 활용법</li> <li>● 척추와 아시할 찾기 / 주의사항</li> <li>● 활법교정과 벌침의 직·자침 실기</li> </ul>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간 : 6주과정 (토) 오후 1시 ~ 5시</li> </ul>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활법창시자 직강  
▶ 대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 특 전 : 봉사론 및 가족(봉침)용 양봉기술 전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1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